

SERMON 5 FEBRUARY 2017

Matthew 5:13-20

1 Corinthians 2:1-12

우리가 나누는 이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 날까 하며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의 머리에서 잠언 말씀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비록 몇몇 분들은 그들이 흥미롭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지금 어둡고 곤란한 시기에 접어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정치적인 강령으로 설교단을 보지는 않지만,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19 세기의 저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사역자들은 항상 한 손으로 신문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론 많은 신문을 가져 올 수 있었습시다만 아무런 신문도 가져 오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세 개의 성경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듣지 못 했던 성경 봉독 말씀인 고린도전서 말씀으로부터도 참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봉독 전에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2:1-12 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어디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의 목소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 자신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형성된 삶의 패턴들을 숨기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사람들이 의식적화된 금식을 묵살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저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메시지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 말씀 하신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돌아 가신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태 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랑과 동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산상 수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산상 수훈은 실과 같이 마태복음의 5, 6, 그리고 7장의 가르침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는 사랑과 동정에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삶의 중요한 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진정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의 삶에 근원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동정"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우리 주변의 도전에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그것 모두는 잘되었지만, 그러나..."라고 말하는 네 머리 속에 작은 목소리가 있는지요.

그것들은 만약 우리가 진정 우리민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을 믿는다면 단지 충분해 집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십니다. 우리는 그것 없이는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론 그렇지만..."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수요일에 부끄러움에 대한 워크숍을 리더 했습니다. 저는 한 20-30 분이 모이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약 80 여명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고 우리를 깊은 부족의 감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좋지 못하다는 관념에 의해; 또는 하나님이 가혹한 신, 진정으로 우리에게 신경을 쓰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에 응답하기에 실패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으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잊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워크숍에 참석하신 어떤 분이 "주 은혜 놀라워(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를 사랑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선물, 주님의 은혜를 받아 드리기를 힘들어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격동을 묘사하기 전에 이 구절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들은 고린도전서 2 장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과 메시지는 지혜와 설득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라. 저는 그것이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적었듯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짓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힘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구속적 사랑과 그렇게 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맛을 잃고 좋은 것을 보존하기 위해 소금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잃은 사람들은 그들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항상 마태복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빛을 비출 만큼 빛을 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깜박거리는 40 와트짜리 전구 빛 같이 느끼고,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밝지 않을 것이라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빛,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절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한 어떤 빛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법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법 사이에 중요한 구별을 만드십니다. 항상 교회 기관들이 율법주의에 휘말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근본적인 율법은 자비로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종종 우리의 율법주의가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여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은퇴한 선교사가 일요일 저녁에 원저의 어딘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밤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다른 전등도 없었습니다. 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 졌습니다. 거의 아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등불을 든 사람들을 태운, 보트가 강 위에 흐린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등불을 교회에 가져왔고 밝은 빛을 함께 만들었다.

어디서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함께 그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의 힘보다도 더 강하고 현명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세상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곧 성찬식 성사를 나누면서 축하를 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겸손하게 하고, 희망과 사랑과 더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용하고, 세상의 소리보다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